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제28권 2호(2015年 5月)
J. Korean Medical Classics 2015:28(2) 067-085
http://jkmc.jams.or.kr
http://dx.doi.org/10.14369/skmc.2015.28.2.067

形氣의 개념으로 이해한 체질치료 연구

[1]嘉泉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鄭熙錫[1]·金度勳[1]*

A Study on Constitution Therapy Based on Hyeong-Gi Concept

Jeong Hui-Seok[1]·Kim Do-Hoon[1]*
[1]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Gachon University

Objectives : To find appropriate constitutional therapy by understanding Hyeong and Gi from the perspective that "Gi is inner position, and Hyeong is outer position, and Yang converts to Gi, Eum makes Hyeong(氣裏形表, 陽化氣 陰成形)".

Methods : 1. Defined Hyeong(形)and Gi(氣)and studied Wonhyeong(圓形) and Banghyeong(方形), the shapes that are formed as a result of Gi-movement. 2. Used 'Hyeong-Gi' concept to analyze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phenomena; classifies parts of the body into Sasang by extrapolating from WonBang concept; and studied Sasangchejil. 3. Based on the above 1 and 2, studied medical direction of Sasangchejil written in *Hwangjenaegyeongsomun·Tongcheon*

Results : 1. Wonhyeong is the result of Yang(陽) movement, whereas Banghyeong is the result of Eum(陰) movement. 2. Hyeong(body) can be classified into Won(圓, circle) and Bang(方, square) or more specifically into Won of Won, Bang of Won, Won of Bang, Bang of Bang. Each corresponds to Taeyang(太陽), Soyang(少陽), Taeeum(太陰), and Soeum(少陰). 3. The constitutional therapy can be formulated by refering to「Tongcheon(通天)」and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each Sasang constitution has a bias toward Mok(木), Hwa(火,) Gum(金), Su(水).

Conclusions : Basic treatment for round shaped people needs to be focused on a cure of Boeum(補陰) and Bojeong(補精), whereas for angular shaped people, treatment should be about Bogi(補氣) and Boyang(補陽). Treatment for Taeyangin(太陽人) should be about strengthening Ganeum(肝陰) and reducing Paeyang(肺陽) and for Soyangin(少陽人), the treatment needs to be strengthening Sineum(腎陰) and diminish Biyang(脾陽). Taeeumin(太陰人) should receive a cure that reinforces Pyeyang(肺陽) and brings Ganeum(肝陰) down, whereas Soeumin(少陰人) should have a cure that strengthens Gi and increases Yang.

Key Words : Hyeong-Gi, Chejilron, Constitution, Wonbang, Sasang

Ⅰ. 서 론

형기(形氣)는 동양의 중요한 철학적 사유도구이다. 존재(存在)는 모두 형과 기를 가진다는 사상(思想)은 대체로 전국시대(戰國時代)에 분명하게 나타난다.[1] 『周易·繫辭傳 上』에서 "精氣가 모여 사물이 되고, 魂이 흩어지면 변한다."[2]라고 한 것은 기(氣)가 모여 유형의 사물이 되고, 사물이 흩어져 무형의 기(氣)가 된다는 동양철학의 관점을 엿볼 수 있다[3].

인간 역시 우주변화의 일부로서 유형의 인체는 끊임없이 기의 취산(聚散)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사람 몸의 기(氣)의 모임과 흩어짐은 사람 몸의 형(形)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관상의 경우 생긴 것만 가지고 여러 가지 인체의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4]. 이는 내부의 기가 외부의 형에 미치는 작용을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여 파악한 것이리라 생각한다. 상고시대에 신농씨는 식물의 모양과 맛을 보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神農本草經』을 썼다고 전해진다. 이 역시 내부 기의 변화가 외부의 모양, 맛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잘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형과 기의 관계 및 변화양상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면, 생물의 변화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되고, 이는 인체의 변화에 대해 더욱 잘 알 수 있게 되어 질병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고대 의서들은 주로 질병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傷寒雜病論』의 경우 풍한의 사기가 몸 안에 들어와 미치는 영향에 관해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東醫寶鑑』에 이르러 이런 경향은 변하게 된다. 형과 기의 관계로 서술[5]한 허준의 『東醫寶鑑』과 인체 내부의 기의 변화를 음양(陰陽)다소로 파악하여 장부의 형(形) 차이를 사상체질(四象體質)로 구별[6]한 이제마의 『東醫壽世保元』은 같은 증상이라도 체질, 체형에 따라 다르게 치료해야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氣裏 形表"의 관점에서 외부의 형을 파악하여, 내부의 기 운동 차이인 체질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치료에 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의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외부로 나타난 형체는, 내부의 기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간(肝), 심(心), 비(脾), 폐(肺), 신(腎)을 목, 화, 토, 금, 수로 분류[7]한 것과 사상의학에서 폐, 비, 간, 신을 목, 화, 금, 수로 배속한 것은 다른 체계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그래서 "陽化氣 陰成形"[8]의 관점에서 형을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억압력, 기를 내부에서 외부로 반발하는 힘으로 이해해서 『靈樞·通天』에 나온 태소음양인(太少陰陽人)의 치료 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

* 본 논문은 2014년 8월 제출된 석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수정하였다.
* Corresponding Author : Kim Do-Hoon.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Gachon University. Tel)031-750-5422, chulian@gachon.ac.kr
金度勳, 嘉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Received(14 April 2015), Revised(10 May 2015), Accepted(12 May 2015).

1) 劉長林 著. 김학권 譯. 주역의 건강철학. 고양. 정보와 사람. 2007. p.184.
2) 朱子 原著. 白殷基 譯註. 周易本義. 서울. 여강출판사. 1999. p.542. "精氣爲物, 游魂爲變"
3) 池載東. 形氣의 觀點에서 본 繆刺法과 巨刺法 硏究.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p.39-41.
4) 觀相學에서도 五行에 따라 형상을 분류하는데 이는 『麻衣相法』의 「五行形」과 「五形象說」에도 잘 나와 있다.(남무길. 觀相學과 形象醫學의 比較硏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p.15-17.)
5) '『東醫寶鑑』의 '形氣論'에 대한 소고'(박준규, 차웅석, 김남일. 한국의학사학회지. 2010. 23(1). p.55-65.)에서 주장한 바이다.
6) 權健赫은 '太少陰陽人에 대한 形氣論的 硏究'(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6. 10(1).)에서 기리형표(氣裏形表)라는 관점에서 '형기론'을 오행과 사상의 연결고리를 설명하는 도구로 제시하였다.
7)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4. pp.119-120. 『素問·玉機眞藏論』" 春脈者肝也, 東方木也, 萬物之所以始生也. 夏脈者心也, 南方火也, 萬物之所以盛長也. 秋脈者肺也, 西方金也, 萬物之所以收成也. 冬脈者腎也, 北方水也, 萬物之所以合藏也. 四時之序, 逆從之變異也, 然脾脈獨何主? 岐伯曰 脾脈者土也, 孤藏以灌四傍者也."
8)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4. p.40.

서비스[9]에서 '형기론', '형기'를 검색하여 추출한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을 바탕으로 하여, 한의학과 관련된 것을 추렸다. 그 결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논문과 함께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형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관점과 층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형과 기의 의미를 생각해보았고, 형기의 관점으로 기술된 『東醫寶鑑』과 사상의학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며, "陽化氣 陰成形"의 개념에서 음양운동으로 나타나는 원형(圓形)과 방형(方形)에 관해 살피고, 원방이 사상으로 어떻게 분화가 되는지, 원방의 개념으로 몸의 여러 부위를 태소음양으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태소음양인(太少陰陽人) 내부의 기 운동 양상을 목, 화, 금, 수 운동의 다소로 표현하여 사상체질별 치료 원칙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Ⅱ. 본 론

1. 형과 기의 기본 개념

인체를 각각 외(外)와 내(內)로 인식할 때, 외부[外]인 형은 질(質)을 가지고 가시적으로 인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며, 내부[內]인 기는 무형의 인식 가능한 실재로서 비가시적으로 인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는 체내의 양기이며 형은 형체이다. 이는 기가 근본이 되어 체내에서 운행하며, 형체는 겉에서 기를 감싸 영위(營衛)가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유지해 준다. 음양은 서로 떨어지면 목적을 이루거나 존재할 수 없으며(孤陽不生, 獨陰不長), 서로 상응하여 조화롭게 승부(勝負)를 거듭함으로써 영속할 수 있다. 따라서 음은 양을 살게 해주고 양은 음을 자라게 해주어, 서로의 목적을 이루고 존재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10]

한편, 경락은 자아와 외계를 연결하는 통로[11]가 되는데, 외형은 외계와 접하는 곳이고, 내기는 수곡을 받아 오장육부를 통해 화생된 정기이다. 외형과 내기는 경맥이라는 통로를 통해 서로 상응하며 영향을 주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경맥과 오장육부의 관계로 보면 형은 경맥, 오장육부에서 발생된 정기는 기로 이해할 수 있다.

『素問·營衛生會』에서는 "사람은 곡식에서 기를 받나니, 곡식이 위(胃)로 들어가 폐로 전하여 주면 오장육부가 모두 기를 받는데 그 청(淸)한 것은 영(營)이 되고, 탁(濁)한 것은 위(衛)가 된다." [12]라고 하였고,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맑은 기가 아래 있으면, 손설(飧泄)하게 되고, 탁기가 위에 있으면 진창(膜脹)하게 된다."[13]라고 하였는데 「營衛生會」의 논지에서 이해하면, 영기는 청기(淸氣)로서 오장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기이고, 위기는 탁기(濁氣)로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靈樞·癰疽』에서는 "위장이 곡식을 받으면, 상초는 기를 내보내어 분육을 따뜻하게 하고, 골절을 기르고, 피부를 통하게 합니다. 중초는 기를 내보냄이 안개와 같은데, 위로 올라가 계곡(溪谷)으로 흘러, 손맥(孫脈)을 적시고, 진액이 조화롭게 함에 붉게 변해서 혈액이 되는데, 혈이 조화로우면 손맥에 먼저 가득 차 넘치고, 이어 락맥(絡脈)으로 흘러, 락맥이 모두 가득차면 비로소 경맥(經脈)으로 흐릅니다."[14] 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기는 상초로부터 나와서 피부근육을 따뜻하게 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 땀을 내는 것을 알 수 있고, 영기는 안개와 같이 퍼져 촉촉하게 만들면서, 상승해서 혈액의 형태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위기를 음양으로 구별해 볼 때 영기를 음기, 위기를 양기로 이해할 수 있다. 형기로 구별하면 영

9) http://www.riss.kr 를 통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검색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10) 『素問·陰陽離合論』 "氣裏形表 而爲相成也."에 대한 주석을 참조하였다.(朴贊國. 개정판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파주. 집문당. p.157.)

11) 朴贊國 崔三燮. 素問 陰陽離合論을 中心으로 한 三陰三陽 硏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2. 6. 1992. p.137.

12)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4. p.183. "人受氣於穀, 穀入於胃, 以傳與肺, 五藏六府, 皆以受氣, 其淸者爲營, 濁者爲衛."

13)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4. p.40. "淸氣在下, 則生飧泄, 濁氣在上, 則生膜脹."

14)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4. p.531. "腸胃受穀, 上焦出氣, 以溫分肉, 而養骨節, 通腠理. 中焦出氣如露, 上注谿谷, 而滲孫脈, 津液和調, 變化而赤爲血. 血和則孫脈先滿溢, 乃注於絡脈, 皆盈, 乃注於經脈."

기가 형이 되고, 위기가 기가 됨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혈로 나누면 혈은 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외(外)의 의미를 가지는 형(形)의 뜻을 확대하여 보면 기(氣)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실질이 있는 형체(形體)도 되고, 형체(形體)를 기르는 경락(經絡)도 되며, 영기(營氣), 위기(衛氣)로 나누어보면 영기가 되며[15], 기와 상대되는 혈도 된다.

그리고 내(內)의 의미를 가지는 기(氣)의 뜻을 확대해 보면 형체(形體)와 상대되는 기(氣)도 되고, 경락(經絡)에 공급이 되는 오장(五臟)에서 생성된 정기(精氣)의 의미도 되며, 영기(營氣)와 대비되는 위기(衛氣)도 되고, 혈과 상대되는 의미의 기도 된다고 할 수 있다.[16]

한편 『東醫寶鑑』에서는 '형'과 '기'를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했을까? 『東醫寶鑑』「辨證·凡病辨有餘不足」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는 입과 코로 쉬는 숨을 말한다. 형은 피·육·근·골·혈맥이다. 형이 성한 것은 여유가 있다는 것이고, 마른 것은 부족한 것이다. 기는 입과 코의 숨을 살펴보아 일을 많이 한 뒤에도 숨결이 평소와 같으면 여유가 있는 것이고, 숨이 차고 급하며 숨이 짧거나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은 부족한 것이다. 이것을 形氣라고 한다."[17]

라고 하였는데, 이글에서 기(氣)는 호흡을 통해 얻는 무형의 에너지를 말하고, 형(形)은 몸을 이루고 있는 유형의 물질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陽化氣, 陰成形"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형과 기를 기본 개념으로 구성된 동의보감

외부의 형으로 내부의 기운동 양상, 즉 체질을 알아내는 개념을 형상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린 것은 지산 박인규[18]라 할 수 있다. 그는 『周易』을 통해 자연과 인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고, 관상과 맥법에 『동의보감』을 접목하여 형상의학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형상의학회(대한전통의학회)에서는 형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형상(形象)이란 사물이 지니고 있는 본질이 자연 그대로 외부로 드러나는 모든 발현상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형(形)이란 사물을 구성하는 조직으로 형체(形體)를 뜻하고, 상(象)이란 사물에 내재한 본질을 뜻하며 징조(徵兆)로 나타난다[19]."

"형상(形象)이란 천(天)의 상(象)과 지(地)의 형(形)이 교합하여 생긴 사물의 생김새와 상태로, 외부로 드러나는 모든 발현상을 말한다. 여기에서 형(形)은 땅의 이치에 따라 나타난 인체의 대소(大小)·비수(肥瘦)·장단(長短) 등 유형한 형체를 뜻하고, 상

15) "營在脈中, 衛在脈外"(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4. p.183.) 라고 한 부분과 대비할 때 본문에서 外形內氣는 氣裏形表의 관점에서 내부 기의 변화에 따른 외부 형상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형기적 관점이다. 營氣, 衛氣를 形氣로 이해해서 배속한 것은 내부 양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營衛氣의 작용으로 이해하는데 초점이 있지, 다시 營外衛內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16) 趙大震. 藏腑病證과 經絡病證 區分에 關한 硏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32. 에 "'形'은 겉(外)의 의미가 강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뜻을 확대하여 보면, '氣'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실질이 있는 形體도 되고, 形體를 기르는 經絡도 되며, 精氣와 상대되는 의미의 形氣도 되고, 氣와 상대되는 의미의 血도 된다. '氣'는 속(內)의 의미가 강하며, 뜻을 확대하여 보면 형체와 상대되는 氣도 되고, 精氣를 갈무리하고 있는 五臟의 의미도 되며, 形氣와 상대되는 精氣도 되고 血과 상대되는 의미의 氣도 된다."라고 했는데 영위기내용은 보충하여 추가하였다.

17) 許浚지음.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東醫寶鑑. 하동. 東醫寶鑑出版社. 2005. p.925.

18) 朴仁圭. 경남 마산. 1927~2000. 江原道 高城郡 長箭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의 祖父는 이곳에서 韓醫師로 의술을 베풀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祖父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韓醫學을 접하게 되었다. 젊은 시절 당시 독립운동가였던 김남철을 만나 후일 周易과 仙道를 배웠다. 그는 周易을 통해 자연과 인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고, 관상과 맥법에 『동의보감』을 접목하여 형상의학의 기초를 형성하여, 大韓傳統韓醫學會를 조직하였다.(박준규. 지산 박인규의 생애와 의학사상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1.)

19) 강경화, 백근기, 김경철, 이용태. 形象에 관한 문헌 고찰-內經을 중심으로-.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2. 16(3). pp.424-425.

(象)이란 하늘의 이치에 따라 나타난 인체의 색(色)·기세(氣勢)·정서(情緖, 神) 등 무형한 징조를 뜻한다."[20]

"형상의학에서 말하는 형상(形象)이란 어떠한 물체를 체(體)와 용(用)의 양면으로 보는 것이다. 의학의 대상은 인간이기에 인간을 체와 용의 양면으로 보는 것이다."[21]

라고 하였는데 지산이 말하는 형상은 내부의 기와 외부의 형으로 나누어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살피는 것으로 형기의 관계가 중시됨을 알 수 있다.

한편『東醫寶鑑』은 형기를 기본 개념으로 저작된 것이다.[22]

「集例」에서 "신이 삼가 살피건대, 사람의 몸속에는 오장육부가 있고 겉에는 근골(筋骨)·기육(肌肉)·혈맥(血脈)·피부(皮膚)가 있어 형태를 갖추며, 정(精)·기(氣)·신(神)이 또 장부와 온몸의 주인이 됩니다. … 이 책은 먼저 몸속의 모습[內景]인 정·기·신·장부(藏府)로 내편(內篇)을 삼고, 다음으로 겉의 모습인 두(頭)·면(面)·수(手)·족(足)·근(筋)·맥(脈)·골(骨)·육(肉)으로 외편(外篇)을 삼았습니다. 또 오운육기(五運六氣)·사상(四象)과 삼법(三法)·내상(內傷)과 외감(外感)·온갖 병의 증상들을 나열하여 잡편(雜編)으로 삼았고, 끝으로 탕액편(湯液篇)과 침구편(鍼灸篇)을 두어 그 변화를 다하였습니다."[23]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내부는 외부에서 직접 볼 수 없기에 그 기능(운행)을 통해 변화를 살필 수 있으므로 '기'에 해당하고, '외'는 그 구조(조직)를 통해 변화를 살필 수 있으므로 '형'에 해당하여, 형기를 중심으로 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의 목차도 형기론적 인체관에 따라「內景篇」,「外形篇」을 앞에 두고 있으며,「雜病篇」은 내외가 섞여 복잡하게 나타나는 질병을 논한 것으로 볼 수 있고,「湯液篇」,「鍼灸篇」은 치료 방면에서 내외로 나눈 것으로 볼 수 있어 형기론적인 인체관에 따라 목차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의보감의 구조와 전체적인 내용은 인체의 形氣는 정·기·신·혈의 편차, 오장육부의 편차로 인해 사람마다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데, 특히 남녀간의 形象에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 이에 따른 특성과 치법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인체관은 후일 '四象醫學'과 '形象醫學'의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24]

3. 형, 방형의 이해

1) 양화기 음성형의 개념에 따른 원형과 방형

음과 양은 형과 기의 언어로 바뀔 수 있다. 기리형표(氣裏形表)[25]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내부의 기운동은 외부의 형체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형이 생긴 모습을 파악해 음체(음기의 결과물), 양체(양기의 결과물)인지 추측할 수 있는 단서로 삼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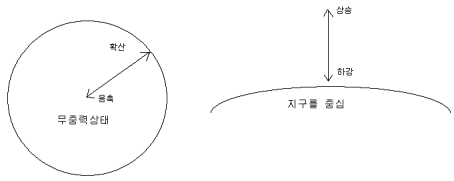

Fig 1. Descending and Condensing, Ascending and Spreading of Eum-Yang movement
(그림 1. 음양의 하강응축, 상승확산 운동)

"陽化氣, 陰成形"의 관점에서, 양 운동은 우주의 측면에서 확산운동이며, 지구를 기준으로 파악하면

20) 강경화, 백근기, 김경철, 이용태. 形象에 관한 문헌 고찰-內經을 중심으로-.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2. 16(3). pp.424-425.
21) 이인수. 형상의학에 대한 고찰 - 진단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4.
22) 박준규, 차웅석, 김남일.『東醫寶鑑』의 '形氣論'에 대한 소고. 한국의학사학회지. 2010. 23(1). pp.55-56.
23) 許浚지음.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東醫寶鑑 . 하동. 東醫寶鑑出版社. 2005. p.3.
24) 박준규, 차웅석, 김남일.『東醫寶鑑』의 '形氣論'에 대한 소고. 한국의사학회지. 2010. 23(1). p.65.
25)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4. p.53.

상승운동이다. 음 작용은 중력이 없는 우주의 관점에서는 응축운동이며, 지구를 기준으로 하면 하강운동이다.

양이 운동하는 측면에서, 확산과 상승은 다른 운동처럼 보이지만, 확산은 불특정한 중심점을 기준으로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이고, 상승은 지구라는 특정한 중심점을 기준으로 확산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음이 운동하는 측면에서 응축과 하강도 불특정한 기준점으로 모이는 것이 응축이고,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모이는 것이 하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음기, 양기의 운동은 특정한 형태를 만든다. 풍선에 숨을 가득 불어넣으면 둥근 모양으로 확산이 되고, 숨을 불어 넣지 않으면 쭈글쭈글하게 각진 모양으로 수축이 된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Won[Circle]-Bang[Angulate Shape] (표 1. 원방의 분류표)

	원	방
생성의 원리(체)	양 운동의 결과 (상승, 확산)	음 운동의 결과 (하강, 응축)
형체의 기능(용)	음 운동 (하강, 응축)	양 운동 (상승, 확산)
생긴 모양	둥글다, 완만함	각짐, 모서리짐
	세로	가로
형성 숫자	2(짝수)	1(홀수)

양기의 확산 운동의 결과 원형(圓形)이 생기며, 음기의 응축 운동의 결과 방형(方形)이 생긴다. 동양철학의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우주관은 양기와 음기의 운동결과 생기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관찰해보면 머리는 둥글고 몸은 각져 있다. 머리뼈에서 관골 이하는 각져 있고 접형골 이상 윗부분은 둥근 모양이다. 열매의 경우에도 수박은 둥글고, 밤 같은 경우는 모서리지고 각진 것을 알 수 있다.

특정한 물질적 중심점을 기준으로 상승할 때 세로모양의 형태가 생기며, 특정한 물질적 중심점을 기준으로 상승하는 힘이 약한 상태로 모양이 생길 때 가로모양의 형태가 생긴다. 세로 모양을 원형, 가로 모양을 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귀와 눈에서 적용되는 것처럼 확산작용의 결과는 주로 2개, 짝수로 형성이 되며, 응축 작용의 결과는 코나 입에서처럼 하나 혹은 홀수로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홀수로 생기는 것은 방형이 되고 짝수로 생기는 것은 원형이 된다.

2) 원형과 방형의 작용

「陰陽應象大論」의 수승화강(水升火降)[26]을 생각해보면, 수승의 과정은 화강의 과정을 전제하고 있다. 화강의 과정도 수승의 과정을 전제하고 있다. 생명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기의 작용으로 생긴 원형은 하강, 응축 운동에너지를 내부에 저장하게 된다. 또한 음기의 작용으로 생기는 방형은 확산, 상승 운동에너지를 내부에 저장하게 된다.

이를 '원형(圓形)의 체는 양이지만, 용은 음이고, 방형(方形)의 체는 음이지만 용은 양이다.'라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둥근 형태의 생물체는 상승, 확산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졌지만, 그 작용은 하강, 응축 작용이며, 각진 형태의 생물체는 하강, 응축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졌지만, 그 작용은 상승, 확산운동이다'라고 할 수 있다.

씨앗은 기본적으로 방형(方形)에 속한다. 홀수로 된 씨눈의 모습에서 응축작용으로 인한 방형이 나타난다. 응축작용에 의해 하나의 지점으로 물질이 모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씨앗이 생성되는 것은 역(逆)[27]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흩어져 있는 물

26)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4. p.41. "故淸陽爲天, 濁陰爲地, 地氣上爲雲, 天氣下爲雨, 雨出地氣, 雲出天氣."

27) 역순의 개념 : 순은 자연의 흐름 그대로 흐른다는 이야기이고, 역은 자연의 순리에 거스른다는 개념이다. 보통 역(逆)같은 단어는 흐름을 거슬러서 안 좋은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려고 한다. 순(順)은 자연스러운 흐름인 경우, 외부에서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가, 자연스럽게 두면, 증가하는 상황,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 열이 주위로 확산되는 상황, 물이 구름에서 땅으로 떨어지며 하강하는 상황이다. 또한 밀집된 물질이 분자간 반발력에 의해 흩어지는 상황이고, 상승한 강, 바다의 물이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를 잃어버리면서 주위에 에너지를 주는 과정이다. 즉 화강의 과정이다. 역

질이 한 곳으로 모인 것이다. 역의 과정을 통해 씨앗에 에너지가 밀집, 축적되는 것이다. 응축된 에너지가 줄기, 잎으로 상승, 확산되는 작용을 통해 식물이 성장한다.

껍질은 기본적으로 원형(圓形)에 속한다. 확산작용에 의해 바깥쪽에 형성되고, 상승하는 기운의 결과로 생물의 윗부분에 생긴다. 확산작용과 상승작용을 완충하기 위해 껍질 자체는 딱딱하게 응고되고 하강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약재에서 진피(陳皮), 목단피(牧丹皮) 등 외부의 열을 내리고 기운을 하강시키기 위해 쓰는 약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머리는 둥글고 몸은 사각형이다. "頭圓 身方"이라고 할 수 있다. 양기는 상승작용이 있고 머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체이다. 생긴 모양도 몸에 비해서 원형이다. 몸은 머리에 비해 각져 있다. 머리에서 기운이 하강한 결과임을 추측할 수 있다. 지구가 햇빛을 받아,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비가 내리는 승강 작용이 발생하듯 머리의 이(耳), 목(目)에서 받은 무형의 에너지와 구(口), 비(鼻)에서 받은 물질적인 에너지가 몸의 승강운동 에너지의 기반이 됨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머리의 화강(火降)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머리에서 공급받은 양기를 기반으로 방형의 몸에서 머리로 귀, 눈, 코, 입으로 기혈을 공급해 정상적인 감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28]. 이는 몸의 수승(水升)작용이다.

몸체와 손발도 원방의 개념으로 파악 할 수 있다. 손발은 원형이다. 길쭉하고, 몸의 바깥에 툭 튀어나오듯 상승해서 나와 있기 때문이다. 몸체는 손발에 비해 방형임은 당연하다[29]. 손발은 경락활동을 통해 양기[30]를 만들고 몸체의 오장육부가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오장육부는 손발이 움직일 수 있도록, 영혈(營血)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오장(五臟)과 육부(六腑)도 원방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육부는 속이 비어 있다. 속이 비어있는 형은 확산의 결과물임을 뜻한다. 오장은 주로 둥글게 뭉쳐 있는 모양이다. 육부에 비해 뭉쳐있는 모양이라는 것은 응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육부는 원(圓)이며 오장은 방(方)이다. 양기의 작용으로 형성된 육부는 화강(火降)의 작용을 하며, 방형인 오장은 수승(水升)의 과정을 주관한다. 육부는 음식물이 입에서 항문으로 떨어지는 순(順)의 과정이며 그를 통해서 음식물이 가진 양기를 몸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오장은 역(逆)의 과정이며 오장이 흡수한 수곡을 머리와 팔, 다리로, 상승 확산 시키는 역할을 한다.『靈樞·終始』의 "五臟爲陰, 六腑爲陽"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원방이라는 개념으로, 생긴 모양을 통해 그 작용, 내부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치료에 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얼굴이 둥근 사람은 양기가 강할 것이고, 얼굴이 각진 사람은 음기가 강할 것이다. 상승, 확산의 양기가 강하면 음기가 쉽게 허해져 보정(補精), 보음(補陰)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얼굴이 각진 사람은 음기가 강해 상승, 확산하는 기운이 약해 기가 상승이 잘 안되기 때문에 보기(補氣), 보양(補陽)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단 원방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은 생물처럼 시간이 지속되어도 그 모양과 형태가 유지가 되는 것으로, 그 모습이 유지되는 내부의 기운동의 방향을 추측하는 것이지, 일시적인 외부의 힘으로 생긴 모양이 가진 사물의 성질을 파악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31]. 또한 원방의 개념을 한가지로만 적용하는 것

(逆)의 과정은 자연스럽지 않은 흐름인 경우, 외부에서 에너지가 가해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가 낮아지는 상황, 물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황, 특정한 외부의 압력 때문에 분자간 밀도가 높아지는 상황, 강, 바다의 물이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다. 즉 수승의 과정이다.

28) 許浚지음.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東醫寶鑑. 하동. 東醫寶鑑出版社. 2005. p.548. "人之耳目, 猶月之質, 必受日光所加, 始能明, 耳目亦必須陽氣所加, 始能聰明, 是故耳目之陰血虛, 則陽氣之加無以受之, 而視聽之聰明失, 耳目之陽氣虛, 則陰血不能自施, 而聰明亦失然, 則耳目之聰明, 必須血氣相須, 始能視聽也"

29) 음양은 상대적이고, 음은 양, 양은 음을 전제로 한다. 손을 몸과 비교하면, 양작용의 결과물(원형)이지만, 손가락과 손바닥을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손바닥은 음작용의 결과물(방형) 이다.

30)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4. p.103.「終始」"陽受氣於四末, 陰受氣於五藏."

31) 이를 이해하지 못 한다면 일시적으로 생긴 사물의 형태에 의미를 두는 실수를 범하기 쉽다.

이 아니라 다른 부위와 다른 동식물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사물의 속성을 더욱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4. 원방의 사상분류

1) 원방의 사상 분화

위에 논한 바와 같이 기의 결과물인 형을 원형(圓形, 양형체)과 방형(方形, 음형체)으로 나누어 원형은 양 운동의 결과물, 방형은 음 운동의 결과물이며, 각각 음기(응축 에너지)와 양기(확산 에너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음양은 태음, 소음, 태양, 소양이라는 사상(四象)으로 분화된다. 음양운동의 결과를 방형, 원형으로 이해한 것처럼 태음, 소음은 방형(方形)이다. 태양, 소양은 원형(圓形)이다.

태음, 소음을 형의 관점에서 봤을 때, 크기가 큰 것이 태음이고, 크기가 작은 것이 소음이다. 그런데 기의 관점에서는 음형의 크기가 더 작다는 것은 음기가 오히려 더 크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태음보다 소음이 음기의 작용(응축작용)은 더 강하다. 또한 큰 것은 양의 확산작용이 더 큰 것이므로 태음물을 방지원(方之圓), 소음물을 방지방(方之方)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태양물, 소양물을 형의 관점에서 파악하면 양기가 크면 상대적으로 물질적인 기반이 적어져, 태양물은 상대적으로 확산하는 기는 크지만 기가 형을 소모해, 형체의 크기는 적을 것이고, 소양물은 형체의 크기는 태양물보다 크지만 양(陽, 확산, 상승)기는 적을 것이다. 그래서 태양은 원지원(圓之圓), 소양은 원지방(圓之方)으로 이해할 수 있다.[32]

물질세계에선 음기, 즉 물질의 양(量)이 일정할 때 과도하게 확산되면 밀도가 낮아져 오히려 차가워지는데, 이를 태양물, 즉 원지원(圓之圓)형의 하강에너지를 내부에 쌓아 놓는 것으로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소음물의 음이 서로 압박하며 응축되는 상황은 물질에 압력을 가하면 내부에 열이 쌓여 폭발하는, 방지방(方之方)형이 확산, 상승에너지를 내부에 쌓아 놓는 것으로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2) 이목구비의 사상분류

이목구비(耳目口鼻)를 사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동무 이제마(李濟馬)는 태양, 소양, 태음, 소음의 순서로 이(耳), 목(目), 비(鼻), 구(口)를 배속하였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 중 무형, 유형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누었다고 이해해도 될 것이다. '陽化氣 陰成形'[33]의 관계로 생각해보면 조금 더 무형적인 것이 양적인 것이고, 유형적인 것이 음적인 것이다. 청각, 시각, 후각, 미각으로 나누어 볼 때 청각과 시각은 무형의 감각이고, 후각과 미각은 물질이 우리 몸에 접촉해서 나타나는 유형의 감각이다. 청각은 시각이 닿지 않는 직선 차원 이외의 진동을 감지하는 감각이며, 시각은 직선 차원의 파동을 감지하는 감각이다. 따라서 청각이 조금 더 무형의 감각이다. 후각과 미각은 후각이 미각보다 경청하고 가벼운 공기의 냄새를 맡는 것이라 후각이 조금 더 양적이고 미각이 조금 더 음적이다.

이목비구(耳目鼻口)가 생긴 모습은 표 1. 원방의 분류표의 내용을 참고하면, 사상의 분류에 딱 맞는 모습이다. 귀와 눈은 두 개로서 양기의 확산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리고 둘 다 둥글다. 위에 말한 대로 양기 운동의 결과인 원형(圓形)이다. 코와 입은 하나로 음기의 응축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음기 운동의 결과인 방형(方形)이다. 그런데 눈은 가로 모양으로 음기가 물질적으로 형성될 때의 모습이다. 그래서 원지방이라고 할 수 있고 귀는 세로 모습이라 원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코는 전체적인 모습이 한 개라 방형이지만, 세로로 서 있고 구멍이 두 개라 방지원형임을 알 수 있다. 입은 한 개로 모여 있고 가로로 생긴 모습이라 방지방형임이 드러난다.

3) 신체 부위의 사상 분류

인체를 원형, 방형으로 이해한 것처럼, 각 신체

32) 太極, 兩儀, 四象, 八卦 등의 분화로 이어지는 『周易』의 四象과 四象醫學에서 다루는 四象은 다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素問』에 나타나는 '秋-太陰'의 의도적 배속도 체용의 관계에 따라서 파악한 것처럼, 四象醫學에서 다루는 四象도 용어는 같지만 체용의 측면에서 달리 쓰였다고 보아야 한다.

33)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4. p.40.

부위도 사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34]를 참고하여, 팔의 뼈를 관찰하면 상완골 하나, 요골과 척골 합이 둘, 중수골은 여러 개, 지골(指骨)은 다섯 개로 형성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완골 하나는 소음, 요골척골은 둘로 소음에서 분화한 태음, 중수골은 확산된 소양, 손가락의 지골은 끝까지 뻗어나가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태양으로 배속할 수 있다. 뼈를 음, 형으로 이해하면 소음에서 태양으로 형이 줄어들고, 기가 늘어남을 추측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상승, 확산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리뼈도 손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한 개의 대퇴골에서 두 개의 비골, 경골, 여러 개의 중족골로 분화하며, 발가락의 길쭉한 모양으로 상승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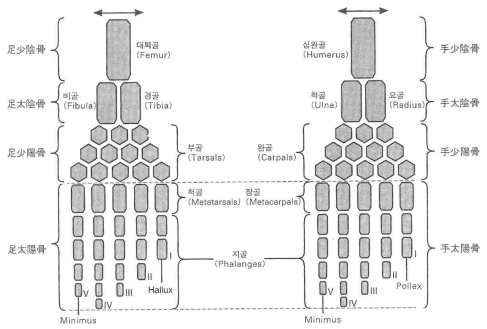

Fig 2. Model Diagram of Bone of Hand and Foot.
(그림 2. 손과 발의 뼈 일반 모형도)

그림 3[35]의 머리뼈에서 두정골은 태양, 접형골은 소양, 관골은 태음, 하악골은 소음으로 나눌 수 있다. 관골 이하는 방형이며, 콧속에 해당하는 접형골 및 두정골 부위는 원형임을 알 수 있다. 두개골은 원형이며, 속이 비어 겉만 딱딱하고, 내부의 뇌수는 말랑말랑하며, 접형골은 원형으로 퍼져 있으나 두개골에 비해서 속에 뼈가 있고, 관골은 사각형 모양으로 속이 비어있고, 하악골은 뼈 바깥에 볼살 및 근육이 있다. 두정골은 둥글고 겉에 뼈가 있어 태양, 접형골은 둥글지만 속에 뼈가 있어 소양, 관골은 각져 있지만 속이 비어 태음, 하악골은 각져 있고 속에 뼈가 있고 겉에 볼살 및 근육이 있어 소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음형인 뼈의 위치로 기운이 속에서 바깥으로 확산 상승하는 정도에 따른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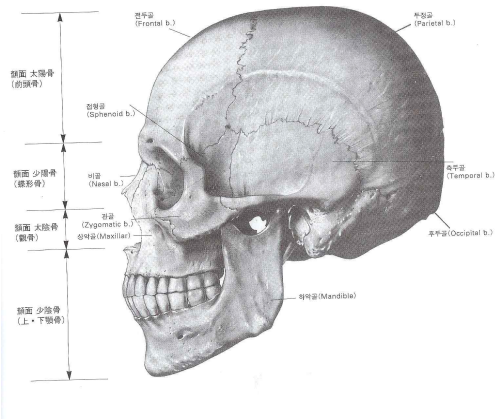

Fig 3. Picture of Outside Surface of Skull
(그림 3. 두개골의 외측면도)

체간을 사상으로 나누면 목, 어깨를 태양, 가슴을 소양, 배를 태음, 아랫배를 소음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랫배에 있는 요추 및 장골은 뼈가 인체의 중심부에 있고, 흉골 쪽은 인체의 중심부 척추에도 뼈가 있지만 뼈와 근육이 섞여 있는 늑골이 있고, 어깨쪽 내부는 실질은 없이 거의 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뼈는 음의 응축 작용이 극대화된 것으로 소음부위에 가장 중심부로 뼈가 응축되어 있고, 점점 태음, 소양, 태양 부위로 갈수록 뼈가 바깥 부위에 위치한다. 이는 양기의 확산 작용이 체간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에 뼈가 바깥쪽에 위치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사상의 오행 배속

동그라미를 사분면으로 나누어 해를 남쪽 방향으로 바라보고 서있다고 생각하여 표시하면 그림 4와

34) 권건혁. 16형인약론. 권씨 방약합편. 서울. 반룡. 1998. p.189.
35) 권건혁. 16형인약론. 권씨 방약합편. 서울. 반룡. 1998. p.150.

같이 표시 할 수 있다.

외부에서 내부로 작용하는 응축력, 즉 형의 입장에서 형이 크고 작아지는 것을 기준으로 태소음양을 배치해보면, 동북방은 태양, 동남방은 소양이 되고, 서남방은 태음 서북방은 소음이 된다[36]. 계절로 따지면 0시는 동지, 6시는 춘분, 12시는 하지, 18시는 추분이다. 동지에서 춘분 사이에는 형체는 적지만 상승 확산되는 기운이 가장 강하다. 음이 가장 적고 상승 확산되는 기운이 강하므로 태양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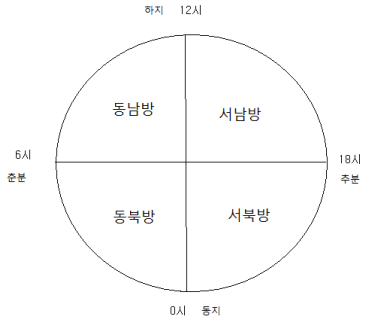

Fig 4. Diagram of Point of Compass facing the Sun
(그림 4. 태양을 바라보고 섰을 때의 방위도)

춘분에서 하지까지는 상승 확산되는 상승 속도는 서서히 줄어가며 응축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해가지만, 여전히 형체는 커지고 있으므로 소양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부터 추분까지는 커다란 형체의 축소가 서서히 시작되어, 태음으로 이해할 수 있고, 추분부터 동지까지는 형체의 축소가 극에 달하지만, 내부에 상승 확산을 위한 에너지를 저장하므로 소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Table 2. Attachment of Sasang by season and the Five Elements
(표 2. 사상의 계절, 오행 배속)

태양	소양	태음	소음
목	화	금	수
춘	하	추	동
용출력	분산력	수렴력	하강력

또한 각 계절은 동지부터는 춘분까지는 상승하는 목의 기운이, 춘분부터 하지까지는 확산하는 화의 기운이, 하지부터 추분까지는 하강하는 금의 기운이, 추분부터 동지까지는 응축하는 수의 기운이 작용한다. 따라서 태양은 목, 소양은 화, 태음은 금, 소음은 수의 오행 운동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팔의 뼈는 손가락뼈에서 직선으로 상승하며, 목기의 힘을 느낄 수 있으며, 중수골은 여러 개로 확산 분열되어 있는 것으로 화기의 확산 작용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상완골은 하나로 응축된 소음의 부위임을 추측할 수 있으며, 요골과 척골로 두 개로 분화된 모습에서 소음에서 태음으로 조금 더 확산되어 양화해서 분화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오행에서 빠진 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가 남는다. 토는 상승과 하강을 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었다가 다시 물로 응결이 된다. 물의 무게를 줄이고 에너지를 똑같이 가열한다면 상승이 더욱 급속하게 될 것이다. 만약 물의 무게를 0에 가깝게 점점 줄인다면, 적은 에너지를 가하여도 큰 운동성을 띠고 상승하게 될 것이다. 회전운동에서 추나, 줄이 없이는 원운동의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을 수 없다. 상승과 하강이라는 기운동의 주체가 토라고 상징할 수 있다. 즉 목화의 상승, 확산운동과 금수의 하강, 응축운동을 어우르는 작용을 하는 것이 토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목화 다음에 장하(長夏)를 토[37]라고도 하고, 12지지에서 각 지지 중간 변화하는 단계에 토(辰戌

36) 이런 배속은 內經의 배속과는 다르다. 內經에서는 동북방이 少陽, 동남방이 太陽, 서남방이 少陰, 서북방이 太陰으로 배속하였다. 四象醫學에서는 形을 기준으로 사상을 배속하여 본문과 같이 배속한 것이다.

37)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4. p.143.「藏氣法時論」

丑未)를 넣기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마의 스승으로 알려진, 운암 한석지[38]는 토를 심장[39]으로 배속했는데, 심장을 수승화강 및 상승, 하강운동을 하는 근본 주체로 생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 형과 기의 균형

형과 기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신체 기능을 할 수 있다.

1) 형과 맥의 균형

『素問·三部九候論』에서

"형(形)은 성(盛)한데 맥(脈)이 세(細)하고 기가 부족하여, 숨쉬기에도 족하지 아니한 자는 위태로우며, 형은 수(瘦)한데 맥이 대(大)하고, 흉중에 기가 많은 자는 죽고, 형기가 상득(相得)한자는 살고, (맥이) 서로 조화롭지 못한 자는 병에 걸리며, 삼부구후(三部九候)가 모두 서로 잃은 자는 죽는다."[40]라고 하여 형과 기(내부의 에너지를 체크하는 맥)가 균형을 맞춰야 살 수 있다고 하였다.

2) 기와 혈의 균형

『東醫寶鑑』에서는 이러한 형기의 균형을 혈과 기의 관계로 설명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耳·耳目受陽氣以聰明」에서는 "달이 반드시 햇빛을 받아야 비로소 빛나듯이 사람의 귀와 눈은 반드시 양기를 받아야 비로소 밝아진다. 그래서 귀와 눈의 음혈이 허하면 양기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귀와 눈이 밝지 않게 되고, 귀와 눈의 양기가 허하면 음혈이 스스로 작용하지 못해서 역시 밝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귀와 눈은 반드시 혈과 기가 서로 의지해야 비로소 밝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귀와 눈은 반드시 혈과 기가 서로 의지해야 비로소 밝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41]라고 하여 혈과 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눈과 귀의 생리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手·手循衣撮空摸床」에서는 "혈은 음물이니 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 기가 혈을 고무시키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던 것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천지가 서로 체와 용이 되는 이치이다."라고 하여 기와 혈이 서로 체용이 된다고 하였다.[42]

3) 영기와 위기의 균형

형을 형체를 기르는 경락의 의미로 볼 때 형체와 상대되는 기(호흡지기에서 근원한 양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陽化氣, 陰成形"[43]의 개념으로 볼 때 경락의 형과 기(호흡지기에서 근원한 양기)는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균형을 잃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구절별로 균형과 조화의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이해하고자 한다.[44]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

"음이 우세하면 양이 병들고, 양이 우세하면 음이 병든다."

물을 데울 때, 물의 양이 많으면 끓이기 위해 불을 더 지펴야 하고, 물이 적으면 조금만 가열해도 쉽게 증발되는 것을 알고 있다. 형이 크면 필요한

38) 운암 한석지(1709~1803)는 다산 정약용보다 약 50여 년 전에 태어난 한국의 유학자이다. 그는 함경도 함흥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줄곧 그 곳에서 살았다. 자손들에게만 전해온 『명선록』이 운암 사후 약 60여 년이 경과된 어느 해에 동무 이제마에 의해 운암의 손자가 운영하던 여관에 벽지로 발라져 있는 것을 발견된 것은 유명한 일화다. 동무에 의해 필사되어 『명선록』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제마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종빈. 운암 한석지 학문의 선진유학적 특성. 哲學論叢. 2000. 20. p.168.)

39) 윤종빈. 운암 한석지 학문의 선진유학적 특성. 哲學論叢. 2000. 20. p.180.

40)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4. p.136. " 形盛脈細, 少氣不足以息者, 危. 形瘦脈大, 胸中多氣者, 死. 形氣相得者, 生. 參伍不調者, 病. 三部九候, 皆相失者, 死."

41) 許浚지음.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東醫寶鑑. 하동. 東醫寶鑑出版社. 2005. p.548. "人之耳目, 猶月之質, 必受日光所加, 始能明, 耳目亦必須陽氣所加, 始能聰明, 是故耳目之陰血虛, 則陽氣之加無以受之, 而視聽之聰明失, 耳目之陽氣虛, 則陰血不能自施, 而聰明亦失然, 則耳目之聰明, 必須血氣相須, 始能視聽也."

42) 許浚지음.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東醫寶鑑. 하동. 東醫寶鑑出版社. 2005. p.779. "血者陰物也, 陰不能自動. … 氣所鼓舞故, 靜者得動. … 此天地互爲體用也."

43)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4. p.40.

44)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4. p.42.

양기가 더 많기 때문에 체온이 낮아져 병이 생길 수 있고, 형이 작으면 적은 양기로도 쉽게 따뜻해진다. 양기가 강하면 강한 불에 물이 쉽게 증발되듯, 형이 줄어들며 손상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형기의 관계로 볼 때 형이 성할 때는 양기가 허해지는 병이 생기고, 기가 성할 때는 음기가 허해지는 병이 생긴다고 이해할 수 있다.

陽勝則熱, 陰勝則寒

"양이 우세하면 열이 나고, 음이 우세하면 차가와진다"

양이란 양화기(陽化氣), 다르게 말하면 발열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음은 음성형(陰成形), 물질을 동화, 저장하는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重寒則熱, 重熱則寒.

"한이 거듭되면 즉 열하고, 열이 거듭하면 즉 차가와진다."

이는 음양의 균형을 유지하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생리로 이해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풍한에 대입해보면, 외부의 한기가 심할 때는 음승(陰勝)의 상황이기 때문에 양병이 되므로 허해진 양기를 보충하려고 열이 나는 것이며, 열기가 심할 때는 양승(陽勝)의 상황이기 때문에 음병이 되어 허해진 음기를 보충하기 위해 차가워지는 것이다.

寒傷形, 熱傷氣, 氣傷痛, 形傷腫. 故先痛而後腫者, 氣傷形也, 先腫而後痛者, 形傷氣也.

"한은 형을 손상시키고 열은 기를 손상시키는데, 기가 상하면 아프고 형이 상하면 붓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아프고 뒤에 붓는 것은 기가 형을 상함이고, 먼저 붓고 뒤에 아픈 것은 형이 기를 상함입니다."

음양의 속성상 같은 기운끼리 서로 통하기 때문에[45], 한사는 형을 상하게 하고, 열은 기를 상하게 한다. "寒傷形, 熱傷氣" 문장은 사실 "寒傷形, 熱傷氣"를 이야기하기보다는 "氣傷痛, 形傷腫"과 이어붙여 "寒傷腫, 熱傷痛"를 말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한기에 상하면 부종이 생기고, 열에 상하면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통증을 치료할 때는 열을 치료해야 하고, 부종을 치료할 때는 한사를 치료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모두 종합하여 맨 위의 문장과 합해보면, "음승(陰勝)하면 몸이 차가워지고, 부종이 생기며, 심하면 열이 난다. 양승(陽勝)하면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며, 심하면 차가워진다."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실제 임상과 연관된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감기가 들 때 풍한의 사기가 몸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통증은 한기가 들어와서 차가와진 몸의 균형을 맞추려고 생기는 발열로 인해서 생긴다는 점[46], 또한 한기 자체는 형을 상하게 하고 부종을 만든다는 점이다.[47]

붓고 열나는 것은, 서양의학적 개념의 염증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의학적으로 염증은, "寒傷形, 形傷腫" 해서 생기는 부종과, 한기가 지나쳐서 생기는 열(重寒則熱)이 합해져 생기는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기를 몰아내고, 반작용으로 생기는 열을 시원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염증을 치료할 수 있다.

이처럼 형과 기의 균형이란, 체격과 맥이 상응해야 하고, 혈과 기가 조화를 이뤄야한다는 뜻이며, 경맥에서 통증이 발생하거나, 붓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6. 형기의 관계를 통한 인체반응의 이해

형과 기의 관계를 통해 인체의 여러 생리, 병리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48]. 아래에서는 각 생리, 병

45) 唐宗海 原著. 尹暢烈, 李南九, 金善鎬 편역. 懸吐完譯 本草問答. 대전. 周珉出版社. 2009. p.14. "同氣相求"

46) "重寒則熱"이기 때문이다. 한기가 심해지면 몸에서 균형을 유지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이 나는 것이다.

47) "寒傷形, 形傷腫"으로 이해할 수 있다.

48) 개인적 경험을 형기에 관한 내용으로 풀어 기술하여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뒷부분에 기술한 사상체질별 치료 원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리현상을 형기적으로 분석해 본 것이다[49].

1) 자리(自利) 현상

소변자리(小便自利)와 대변자리(大便自利)로 나눌 수 있다. 방광 혹은 소화기(胃脘, 胃, 小腸, 大腸)의 형과 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스트레스나 외부에서 들어온 풍한 사기(邪氣), 생랭물(生冷物)때문에 부(腑)가 가진 기가 약해지면(차가워지면), 소변이나, 대변의 형태로 음액을 배출하여 형을 덜어내 부(腑)가 가지고 있는 기와 균형을 맞추는 기전으로 소변자리, 대변자리의 증상이 발생한다. 「陰陽應象大論」의 "淸氣在下, 則生飧泄"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칠정이 울결되거나, 풍한의 외사, 혹은 한습(寒濕)한 음식이 부(腑)에 영향을 주어 청기가 상승이 안 되는 경우, 방광과 소화기에서 상승해야할 청기가 아래에 남아 있을 때 손설(飧泄)이라는 형태로 음을 배출하여 균형을 유지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원인 치료와 함께 향이 나는 약재나 쓴맛이 나는 약재로 형을 덜어내는 것이 치료의 중점이 된다.

2) 땀

땀은 "陽加於陰謂之汗"[50]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양기가 음보다 많아진 상황인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 실질적으로 위기가 영기보다 많아지는 경우이다. 운동을 해서 땀이 나거나, 체질적으로 상승하는 힘이 강해 위기가 많아질 때다. 두 번째 경우는 위기가 많지 않지만, 영기의 상승이 부족해 표부의 음기가 부족해서 땀이 나는 경우이다. 상대적인 양이 많아져, 열이 나는 것처럼 몸이 착각하여 땀이 나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위기는 상초로부터 나와서 피부근육을 따뜻하게 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 땀을 내기 때문에 기로 이해할 수 있고, 영기는 안개와 같이 퍼져 촉촉하게 만들기 때문에 음이 되어 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기가 형을 이기는 경우인데, 계속 땀이 난다면 병리적인 상황으로 熟地黃 등으로 보음해서 형을 돕고, 黃芩 등으로 사화해서 기를 덜어내는 방향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두 번째 경우는 白朮, 黃芪, 人蔘 등으로 리습(裏濕)을 없애고, 보기해서 영기를 상승시켜 표부를 시원하게 만들어서 형을 돕는 치료를 해야 한다.

3) 형(形)이 붓고 열나는 반응(염증)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외부의 풍한이나, 한습한 음식으로 차가와진 조직을 회복시키기 위해 붓고, 열이 나는 과정을 몸 안에서 거치는데 이를 한방적인 개념으로 염증으로 이해할 수 있다.[51] 피부 바깥쪽에 있을 때는 자락사혈로 붓고 열나는 것 모두 배출시켜 형도 덜고, 열도 배설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내부에 염증이 있을 때는 급한 경우엔 표치(標治), 급하지 않은 경우엔 본치(本治)하는 치료 원칙에 따라 치료해야 한다. 즉 통증이나 증상이 심할 때는 겉으로 나타난 열을 꺼야하며, 급하지 않을 때는 근본 원인에 해당하는 한습(寒濕)을 제거하거나, 풍한에 의해 약해진 표부의 양기를 보(補)하는 방법을 쓴다. 사기(邪氣)로 형이 늘어났기 때문에, 형을 덜어주거나, 기를 더해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형기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형기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염증은 콧물이나 가래와 크게 구별되지 않으며, 다만 차가운 형체를 따뜻하게 하려고 발생하는 반발열[重寒則熱]만 추가되었을 뿐이다.

4) 구토

위장에 들어온 탁한 물질이나 생랭(生冷)한 음식이 기능을 방해하여 구토의 과정을 통해 형을 덜어내는 과정이다. 생강과 같은 온위(溫胃)하는 약재가 구토를 멎게 하는 이유가 된다.

5) 콧물

외부에서 들어온 풍한의 사기가 폐를 차갑게 하는 경우 생긴다. 또한 풍한이 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생길 수 있는데 소화기가 약해 영기가 부족하거

49) 예를 들어, 양기를 회복하는 방식을 형을 덜어내는 것과 기를 더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구토, 설사, 콧물, 가래 등은 형을 덜어내어 양기를 회복하는 방식이며, 기를 더해서(몸에서 열이 나서) 양기를 회복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코피가 난다던지, 콧물이나 가래, 구토에도 흰색에서 누런색 붉은색으로 진액의 색깔이 다르다던지 하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0)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4. p.56.

51) 논점에 많은 비약이 있으며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염증을 형기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비염, 위염, 크론병, 암(癌) 등 여러 가지 병의 해석,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나,[52] 심, 폐의 기능이 약해 위기가 약할 경우 가벼운 풍한에도 콧물이 날 수 있다. 콧물도 역시 형을 덜어 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반응이다.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콧물이 나는 경우는 폐에 한기가 있는데 비강이 건조해서 배출될 형, 즉 콧물이 부족한 경우이다. 따뜻한 음식에서 위완을 통해 직접 올라온 수증기와 음식에서 흡수해 비강으로 공급된 영기가 폐를 윤택하게 해서 콧물이 나는 것이다.

6) 가래

콧물의 경우와 거의 같다. 다만 가래는 조금 더 깊은 곳에 풍한의 사기가 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지가 들어와 콧물, 가래가 나오는 경우는 중탁한 물질이 조직에 들어와 형(形)이 더 늘어나, 콧물 가래를 배출함으로써 형을 덜어내어 기와 균형을 맞추려는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형과 기의 관계로 여러 가지 생리, 병리 현상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치료에도 응용할 수 있다.

7. 형기균형 관점에 의한 사상체질 치료기전

형기를 기본 관점으로 한 치료원칙은 생리, 병리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형기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형과 기의 균형을 맞춰주어야 하며, 형이 문제가 있는지 기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구분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내부의 기의 차이에 따라 형의 차이가 생기므로, 형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인체의 병리의 차이를 고려하여 치료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한다.

사상의학에서는 선천적인 음양의 다소에 따라 치료의 방법이 태소음양인(太少陰陽人)의 체질에 따라 부족한 것을 보하고 남는 것을 사해서 음양기혈의 조화를 꾀하는 치료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素問·六微旨大論』에는 “天氣下降, 氣流于地, 地氣上升, 氣騰于天, 故高下相召, 升降相因, 而變作矣.”[53]라고 하여 천지의 변화는 지기와 천기의 승강에 의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인체에서 수승화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체의 수승화강은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임맥 독맥의 승강작용이요, 둘째는 수족의 삼음경와 삼양경에서 일어나는 승강작용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장육부의 수승화강 작용으로 오장은 음장으로 수승의 과정이 되고 육부는 양부로 화강하는 귀처가 된다.[54] 신음이 간음으로, 간음이 비음으로, 비음이 폐음으로 올라가는 것은 역(逆)의 과정이자 수승(水升)작용의 표현이요, 위완의 양이 위양으로, 위양이 소장양으로, 소장양이 대장양으로 내려가는 것은 순(順)의 과정이자, 화강(火降)작용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목화지기인 양이 허한 체질인 태음인과 소음인에서 음이 상승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보면, 수가 간, 신국에 있을 때에는 수의 본래 목적인 윤작용을 해내지 못하므로 상부인 폐비지국에서 수가 오르지 못하여 건조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무 이제마는 이러한 현상을 체질과 결부 시켰다. 신대비소한 소음인은 신국에서 비국으로 수가 상승하지 못하므로 수는 소변자리(小便自利)하여 비약증(脾約證)이 되고[55], 비국은 수의 윤작용을 받지 못하므로 진액이 올라가지 못 하여 구조(口燥), 심번(心煩)의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東醫壽世保元』에서도 소양인, 소음인의 병리기전을 음양승강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자연의 원리인 수승화강의 원리로서 태소음양인의 병리기전을 숙지한다면 “수음다, 화양소(水陰多, 火陽少)”한 소음인은 발열하고 한다(汗多)하는 때라도 인삼,황기 부자 등 온열한 약을 투여할 수 있으며, “화양다, 수음소(火

52) 영기(營氣)가 부족하면 표부(表部)가 건조해지고, 건조하다는 것은 ‘진액이 별로 없다’는 것으로 쉽게 열받고, 쉽게 차가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쉽게 풍한의 침범을 받게 된다.

53)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4. p.397.

54) 權健赫. 太少陰陽人에 대한 形氣論的 硏究.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7. 10. p.544.

55) 비국으로 수분이 올라가지 못하여 신, 방광이 차가워져 하초의 신방광이 양기를 회복하기 위해 소변을 바깥으로 과도하게 배출하게되어 대변이 燥結함.

陽多 水陰少)"한 소양인이 몸이 춥고 설사할 때라도 황련, 고삼 등 대고대한(大苦大寒)한 약물을 투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체질의 치료 원칙을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태양인

「通天」에서 태양인의 치료 원칙은 " 必謹調之, 無脫其陰, 而瀉其陽," 이다. 태양인은 "多陽而少陰" 이라는 표현을 했다. 이러한 상태는 겉과 속의 많은 화기가 작은 양(量)의 음을 소작시켜 버림으로써 병이 생기는 것이니, 음기가 탈(脫)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간음을 보하고 폐양을 사해야 하는 것을 치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56]

2) 소양인

「通天」에서 소양인의 치료 원칙은 "經小而絡大, 血在中而氣外, 實陰而虛陽, 獨瀉其絡脈"이다. 기본적으로 소양인은 다양소음(多陽少陰)하며, 구체적으로는 다화양 소수음(多火陽 少水陰)한 체질이다. 비대신소한 체질로서 비양이 과다하고 신장의 음기가 부족한 체질인 것이다. 인체의 형을 상하좌우표리의 음양으로 논한 『素問·陰陽離合論』의 "外者爲陽, 內者爲陰, 然則中爲陰"[57]에 외부인 표는 양이 되고, 내부인 리는 음이 된다. 그리고 『靈樞· 壽夭剛柔』의 "內有陰陽, 外亦有陰陽. 在內者, 五藏爲陰, 六府爲陽. 在外者, 筋骨爲陰, 皮膚爲陽."[58]에 따르면, 오장육부는 내로서 음이 되고, 피부와 근골은 외로서 양이 된다.

장부와 경락으로 표리를 구분한다면, 장부는 리로서 음이요 경락은 표로서 양이며, 오장육부를 음중지음양(陰中之陰陽)으로 구분하듯이 경락을 양중지음양(陽中之陰陽)으로 나누면, 경맥은 인신의 심부로 흘러 양중지음이 되며, 락맥은 천층으로 흩어져 양중지양이 된다.

따라서 화양이 태과하고 수음이 불급한 소양인은 양중지양인 락맥이 무성하여 "經小而絡大"[59]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60]

화양다 수음소(火陽多 水陰少)한 소양인은 양이 과왕(過旺)하고 음이 부족한 체질로서, 인체의 경락의 승강원리인 삼음삼양경의 수승화강의 원리로서 볼 때 상승한 양기가 한기의 포장을 받아 배부의 태양경으로 하강할 때, 화 부위인 배려(背膂)부위에서 수 부위인 방광부위로 하강하지 못하여. 배려(背膂)부위에 딱딱하게 응취하게 되어서 비국이 한기를 받아서 비수한표한병(脾受寒 表寒病)이 되게 될 것이다.

「通天」의 저자가 말한 "實陰而虛陽"이란 것은 바로 신음을 보하면서, 비양을 사하라는 말 인 것이다.

태음인, 소음인의 양기가 항상 내부인 음부위 즉 간,신의 부위에 있으므로 외부인 양부위 즉 비, 폐 부위까지 상승해내지 못하는 것과는 반대로, 태양인 소양인의 음기는 외부인 비, 폐의 부위에서 내부인 간,신의 부위까지 하강해내지 못하게 되어 음허리열(陰虛裏熱)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3) 태음인

「通天」에서 제시한 태음인의 치료 원칙은 "太陰之人, 多陰而無陽, 其陰血濁, 其衛氣濇, 陰陽不和, 緩筋而厚皮, 不之疾寫, 不能移之." 이다. 태음인은 금음다(金陰多)하고 목양소(木陽少)한 체질로서 간대폐소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음인 간수(肝水)가 발전하여 폐음인 폐수(肺水) 즉 진으로 승하지 못하고 수의 윤작용을 받지 못하여 폐가 건조하게 된다.

태음인에서 진액이 상승하지 못하여 폐가 건조해진다는 것은, 신국(腎局)에서 일차로 양화한 수가 상초의 폐 부위까지 오르지 못하여 결국 폐가 차갑게 되고 간은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東醫壽世保元』에서는 태음인병을 위완수한표한병(胃脘受寒表寒病)와 간수열리열병(肝受熱裏熱病)으로 규정하고 표리한열로 구분하여 논하고 있다.

폐가 차가워지면 폐중의 양이 부족하여 위기가 발할 수 있는 근원이 약화되어 표국의 양기가 부족

56) 韓東錫. 동의수세보원주석. 서울. 대원출판. 2006. p.324.
57)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4. p.53.
58)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4. p.82.
59)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4. p.460. "少陽之人, 多陽少陰, 經小而絡大"
60) 權健赫. 太少陰陽人에 대한 形氣論的 硏究.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7. 10. p.546.

하게하게 된다. 그래서 약한 한사에도 쉽게 표한병에 걸리게 된다.

그리고 간이 열을 받아 간수열리열병이 일어난다면, 폐가 건조한 증상인 해수(咳嗽), 효천(哮喘), 대변조결(大便燥結) 등의 증상과 더불어 혈을 저장하는 간이 제 기능을 상실하여 여러 가지 출혈현상이나 혈액학적 병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양명병의 조증인 것으로서 양이 혈분에서 기분으로 곧바로 올라가지 못하여, 위외(衛外)작용을 하지 못하고, 혈분 중에 머물러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양을 내부로 포장하고 수렴하는 기운인 금(金)이 과왕하게 되면 양이 표층인 피부로 표출되지 못하고 내부인 근(筋)에 잠장(潛藏)되기 때문에 피부는 음화하여 두터워지며, 근은 부드럽게 되는데, 「通天」의 "陰陽不和, 緩筋而厚皮"라는 것은 이렇게 금음다(金陰多)하고 목양소(木陽少)한 태음인의 체질의 병변을 피부근골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처럼 태음인의 치료 원칙은 폐양(肺陽)을 보하고 간음(肝陰)을 사하는 것이다.

4) 소음인

「通天」에서 소음인의 치료 원칙은 "少陰之人, 多陰少陽, 小胃而大腸, 六府不調, 其陽明脈小, 而太陽脈大, 必審調之, 其血易脫, 其氣易敗也." 이다.

소음인은 다음소양(多陰少陽)한 체질로 표현된다. 바꾸어 말하면 수음다 화양소(水陰多 火陽少로) 규정할 수 있는 체질인 것이다. 이를 신대비소(腎大脾少) 라고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소음인은 육부의 경맥이 상하좌우로 고르게 발달하지 못하고, 비위의 양명맥은 작고 신방광경의 태양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장의 화양(火陽)이야 말로, 인체의 원기로서 수곡을 섭취하여 기와 혈을 창조하는 근본이 되는 것인데,[61] 소음인은 비양이 작은 체질로 기와 혈이 탈산(脫散)해버리기 쉽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소음인의 병을 신수열표열병(腎受熱表熱病)와 위수한리한병(胃受寒裏寒病)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논하였다. 신수열표열병은 오행의 수국(水局)인 신국(腎局)에서 승발하는 힘인 수생목(水生木)하는 기가 부족하여서 삼음경을 따라서 복부로 올라가야할 양기가 곤울(困鬱)되서 거꾸로 소음의 표인 방광부(膀胱腑)에 맺히게 되는 증세로 여기에는 방광본부(膀胱本部)에 양기가 울축되어 있느냐 아니면 방광의 표인 경락 중에 있느냐에 따라서 울광증과 망양증으로 나뉜다.[62]

소음인의 양증인 신수열 표열병의 울광증과 망양증은 몸에 열이 나면서 머리가 아픈 것이 공통 증상이지만, "蓋 鬱狂證 都是 身熱 自汗不出也. 亡陽證 都是 身熱 自汗出也."의 동무의 표현에 의한다면 자한(自汗)의 출, 불출에 의해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설명하면 신국의 양기가 경(經) 중에 있는 망양증의 경우에는 땀(허한, 도한)을 특징으로 하고, 양기가 곤울(困鬱)되어 방광의 본부에 있을 경우 발광(發狂) 섬어(譫語)하고 손을 허우적대고 귀사(鬼邪)를 보는 울광증으로 구분하고 있다. 망양증의 경우는 양기가 상승되지 못 하면 양기를 따라 올라가는 수분이 부족해져 방광경에 허열이 생겨 모공을 열어 땀을 내게 되어 이른바 식은땀이 나면서 몸 안의 진액이 고갈되게 된다. 또한 이 경우 양기가 승발하지 못한다 함은 결국 체내에 음이 성하여 소변이 자리(自利)한 증세를 동반하므로 진액이 상하로 고갈되면 대변이 건조해져 변비가 생기면서 양명열이 오른다. 울광증의 경우는 방광의 본부(本腑)에 머물러 혈변이 나오고 망양의 경우와 달리 기화되지 못한 양기가 혈락으로 침범하여 심장이 혈을 주관하므로 심장에 머무르는 신이 사양(邪陽)의 침범으로 어지러워져 심주설(心主舌)하므로 번갈(煩渴)이 나고 헛소리를 함이 마치 귀사(鬼邪)를 보는 것과 같으며, 섬어(譫語) 발광(發狂)하고 손으로 옷깃을 더듬은 증세가 일어난다. 이 경우 『傷寒論』에서는 '코피가 저절로 나오고 또한 하혈을 하면 열이 풀리게 된다'라고 하였다. 울광증의 경우도 양기가 곤울되어서 생겨나게 된 것으로 망양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승양익기가 우선이 되는 것이다.

61) 韓東錫. 동의수세보원주석. 서울. 대원출판. 2006. p.72.

62) 權健赫. 太少陰陽人에 대한 形氣論的 硏究.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7. 10. p.548.

이 경우에 신수열표열병에 『傷寒論』의 방법으로 하법을 사용하면 열이 내리는 듯하고 대변이 풀리나 이차적으로 원기가 전혀 승발하지 못하여 그 해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Ⅳ. 결 론

"기리형표(氣裏形表)"의 형기로 인체를 파악하는 관점은 체질론(體質論)의 단초가 된다. 내부의 기 운동은 외부의 형이 생기는 모습에 큰 영향을 주어, 형을 통해 체질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東醫寶鑑』도 형기의 구조로 서술되었는데, 사람의 비수(肥瘦), 남녀, 노소, 기혈이 많고 적음 등의 차이에 따라 같은 증상이라도 다른 치법을 쓰도록 서술되어있다.

양화기(陽化氣) 음성형(陰成形)의 관점에서 양 작용은 우주의 관점에서 확산운동이며, 지구를 기준으로 보면 상승운동이다. 음 작용은 우주의 관점에서 응축운동이며, 지구를 기준으로하면 하강운동이다.

이런 음기, 양기의 운동은 특정한 형태를 만든다. 양기의 확산 운동의 결과 원형(圓形)이 생기며, 음기의 응축 운동의 결과 방형(方形)이 생긴다.

「陰陽應象大論」의 수승화강 현상은 '원형의 체는 양이지만, 용은 음이고, 방형의 체는 음이지만 용은 양이다.'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물상(物象)의 모양이 둥글다면 상승, 확산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졌지만, 그 작용은 하강, 응축작용이며, 각져 있다면 하강, 응축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졌지만, 그 작용은 상승, 확산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외형이 둥근 사람은 상승, 확산작용이 강해 내부의 음이 부족해지기 쉬워 보정(補精), 보음(補陰)하는 치료법을 써야할 경우가 많고, 형태가 각진 사람은 하강, 응축 기운이 강해 기 상승이 잘 안되어 기가 허해지기 쉬우므로 보기(補氣), 보양(補陽)해야 할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형을 원방으로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지원(圓之圓), 원지방(圓之方), 방지원(方之圓), 방지방(方之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태양, 소양, 태음, 소음의 사상으로 나눌 수 있다. 인체 부위도 사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형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태양, 소양, 태음, 소음이 목, 화, 금, 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형과 기의 균형은 건강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형과 기의 균형은 형과 맥의 균형, 기와 혈의 균형, 영기와 위기의 균형 등을 의미한다. 외부의 자극에 맞추어 우리의 몸은 형기의 균형을 맞추려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리(自利), 땀, 염증 등의 현상 역시 형과 기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고, 치료 시에도 형과 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사상체질의 치료에도 매우 중요한 요점이며, 각 체질별로 부족한 것을 보하고, 강한 것을 사하여 형기를 맞추는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각 체질이 목, 화, 금, 수로 치우침을 고려하고 「通天」의 내용을 참고하면, 태양인은 간음을 보하고, 폐양을 사해야하고, 소양인은 신음을 보하면서 비양을 사해야하며, 태음인은 폐양을 보하고 간음을 사해야하며, 소음인은 승양익기하는 것이 기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1. WS Hong. Proofreading literal translation Hwangjenaegyeongsomun. Seoul. Institute of Traditional Culture. 1994. p.40, 41, 42, 53, 56, 136, 143, 397. pp.119-120.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4. p.40, 41, 42, 53, 56, 136, 143, 397. pp.119-120.
2. WS Hong. Proofreading literal translation Hwangjenaegyeongyeongchu. Seoul. Institute of Traditional Culture. 1994. p.53, 82, 103, 183, 460, 531.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4. p.53, 82, 103, 183, 460, 531.
3. DS Han. Principle of the Alteration of the Cosmos. Seoul. Daewonbooks. 2005.
   韓東錫.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 2005.

4. DS Han. Comments of Donguisusebowon. Seoul. Daewonbooks. 2006. p.72, 324.
韓東錫. 동의수세보원주석. 서울. 대원출판. 2006. p.72, 324.
5. GH Kwon. Bangyakhappyeon of Mr. Kwon. Seoul. Banryong. 1998. p.150, 189.
權健赫. 권씨 방약합편. 서울. 반룡. 1998. p.150, 189.
6. Written by J Heo. Translated by SH Yoon, HJ Kim etc. Donguibogam Chinese-Korean translation. Hadong. Donguibogam Publisher. 2005. p.3, 548, 779, 925.
許浚 지음. 윤석희, 김형준 외 옮김. 對譯東醫寶鑑 . 하동. 東醫寶鑑出版社. 2005. p.3, 548, 779, 925.
7. CK Park. Revised version Hyeonto-Korean translation Hwangjenaegyeongsomun Comments. Paju. Jipmoondang. 2005. p.157.
朴贊國. 개정판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파주. 집문당. 2005. p.157.
8. Written by JL Liu. Translated by HK Kim. Health Philosophy of Juyeok. Goyang. Information and Human. 2007. p.184.
劉長林 著. 김학권 譯. 주역의 건강철학. 고양. 정보와 사람. 2007. p.184.
9. Written by X Jhu. Translated by EK Baek. Original meaning of Juyeok. Seoul. Yeogang Publisher. 1999. p.542.
朱子 原著. 白殷基 譯註. 周易本義. 서울. 여강출판사. 1999. p.542.
10. Written by JH Tang. Translated by CY Yoon, NG Lee, SH Kim. Hyeonto Korean Translation Bonchomundap. Daejeon. Jumin Publisher. 2009. p.14.
唐宗海 原著. 尹暢烈, 李南九, 金善鎬 편역. 懸吐完譯 本草問答. 대전. 주민출판사. 2009. p.14.
11. GH Kwon. A Research of the Tae-So-Eum-Yang-In on the basis of the shape and the energy.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and medical history. 1997. 10. p.544, 546, 548. pp.494-589.
權健赫. 太少陰陽人에 대한 形氣論的 硏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7. 10. p.544, 546, 548. pp.494-589.
12. JG Park, WS Cha, NI Kim. A View on Hyung-Ki in Donguibogam.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0. 23(1). p.65. pp.55-56.
박준규, 차웅석, 김남일. 『東醫寶鑑』의 '形氣論'에 대한 소고. 한국의학사학회지. 2010. 23(1). p.65. pp.55-56.
13. JD Jee. The study on the 'Mu-acupuncture treatment(繆刺法)' and the 'Geo-acupuncture treatment(巨刺法)' viewed in terms of Heong(形)-Gi(氣). Doctorate Thesis. DaeguHany Univ. 2009. pp.39-41.
池載東. 形氣의 觀點에서 본 繆刺法과 巨刺法 硏究.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p.39-41.
14. KH Kang, GG Baek, KC Kim, YT Lee. Study on Hyungsang in Nei Ching.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2. 16(3). pp.424-425.
강경화, 백근기, 김경철, 이용태. 形象에 관한 문헌 고찰-內經을 중심으로-.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2. 16(3). pp.424-425.
15. DJ Jo. A Literature Review on making a distinction between the Jang-Bu(藏府) disease and the Meridian(經絡) disease. Doctorate Thesis. Kyunghee Univ. 2003. p.32.
趙大震. 藏腑病證과 經絡病證 區分에 關한 硏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32.
16. CK Park, SS Choi. A Study on Sameum-Samyang based on Somun

Eumyangyihap-non.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and medical history. 1992. 6. p.137.
朴贊國, 崔三燮. 素問 陰陽離合論을 中心으로 한 三陰三陽 硏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2. 6. p.137.

17. IS Lee. A study on Hyungsang Medicine. Master's Thesis. Kyunghee Univ. 2002. p.4
이인수. 형상의학에 대한 고찰 - 진단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4.
18. MK Nam. A Comparative study on physiognomy and hyungsang medicine. Doctorate Thesis. Kyunghee Univ. 2010. pp.15-17.
남무길. 觀相學과 形象醫學의 比較硏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p.15-17.
19. JB Yoon. A Study on Un-Am Thought of Pre-Chin China Confucanism. Journal of 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2000. 20. p.168, 180.
윤종빈. 운암 한석지 학문의 선진유학적 특성. 哲學論叢. 2000. 20. p.168, 180.
20. JG Park. A Study on the life and theory of Ji San Park In Kyu. Master's Thesis. Kyunghee Univ. 2008. p.1.
박준규. 지산 박인규의 생애와 의학사상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1.
21. H Heo. A Study on Han Dong-seok's『DongEui SooSe BoWon JooSeok』.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2007. 101. pp.321-349.
허훈. 한동석『東醫壽世保元』의 一考察 - 오행관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2007. 101. pp.321-349.
22. RISS for higher education. KERIS. http://www.riss.kr(학술연구정보서비스). [2013.12 ~ 2014.4. 검색].